

테마칼럼

경제포럼

이슈포럼

민고론

정론·논의·대상

공기업의 경영 평가



김 현 언

얼마 전 이루어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의미 있는 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방만한 경영과 비능률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오면서도 혁신적인 개혁이 불가능해 보이던 터라 단비가 뿌리듯 모처럼 시원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A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의 구성원들은 선진적 경영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이고, 낮은 등급의 기관들은 이제 위기를 실감할 수 있어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해임건의나 경고령을 받은 기관장들은 평가 항목이나 평가 비율에 이견이 있었지만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귀에는 패자의 변으로 들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국가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혁신적 노력이 몹시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러한 외부 평가가 정부의 모든 부서에 이르기까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혁신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공채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투자한 기업이며 조세나 공과금을 감면, 면제받게 되고 자체구입이나 토지 확보, 생산, 판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기업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손쉽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공기업에게 이같이 유리한 조건을 준 이유는 사업의 목적이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수익성이 약하여 민간 기업이 투자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업은 민간 사기업이 하기 힘든 사업을 주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은 경영자의 목적의식을 흐리게 한다. 예를 들어 요즈음 주공의 사업행태를 보면 민간기업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공은 국민이나 소비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받으면서도 민간아파트보다 질도 낮고 가격도 별로 차이가 없다. 광주 진월동의 중대형 아파트분양에 시민들의 눈길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도시공사가 실버타운에 신설,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의 가격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설립됐는데도 민간기업과 아무런 가격 차이가 없고 그 편리함에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금싸라기 땅에 퍼블릭 골프장이 만들어지도록 허락된 이유는 그린피가 비싸지 않고 적당한 가격으로 주로 실버골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민들의 배려이다. 실버타운의 명분으로 개발된 땅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면 사업의 공익성에 어긋나고, 실버타운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사업이라면 도시공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공기업의 경영자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하고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경영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장의 평가도 이와 같은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이 우려했던 정치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최하위 등급 4인 중 3인이 MB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우려를 안쓰리게 한다.

로비에 좌우되는 인사, 선거에 관련된 낙하산 인사로는 선진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은 경쟁을 통해서 생존하고 또한 치열한 경쟁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공기업이 조화롭게 목적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업이 정인이 투철한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기관장 인사가 실제적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감독기관의 정실관계로 결정된다면 그 결과는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결국 지역민의 복지와 세금이 축나게 된다.

공기업의 경영이 선진화하려면 우선 경영이 투명해져야 하고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기업도 투명경영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의 경우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투명경영과 경영에 대한 평가가 소홀하면 개선을 바랄 수 없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보다 치밀하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목표의식이 확실해지고 이를 달성하려는 동기유발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63년 무분규 금호고속 상생경영 확산돼야

금호고속 노사가 올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해 63년간 무분규 신뢰를 이어가게 됐다고 한다. 한 두 해도 아니고 63년간 분규 없이 임금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금호고속은 24일 노사가 '2009년 임금협상'을 갖고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노조는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회사에 위임했고, 사측은 고충분담 차원에서 임원 연봉 10%를 반납키로 했다. 노사는 이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경영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도 결의했다.

금호고속은 임원과 사원들이 서로 "형님" "아우"라고 부른다고 한다. 회사 임원과 노조 간부의 반목하는 모습도 볼 수 없다. 마추치면 웃으며 안부를 묻는다. 외환위기 때도 이 회사에선 한 명도 퇴사한 사람이 없다. "지금 내

보내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라는 회사 측의 배려 때문이다. 노조원들은 회사를 '또 하나의 가정'으로 여긴다. 금호고속이 창사 이래 63년간 무분규를 이어올 수 있는 비결은 이처럼 가족 같은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는 노사 한마음에서 시작된다. 노사 한쪽이 자신의 배만 불릴 경우 아무런 특정한 기업도 쓰러지고 만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만 여겨졌던 미국 자동차 빅3가 휘청거리는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사관계 악화에 찾을 수 있다. 미국 자동차 빅3의 몰락은 세계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경영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도 결의했다.

금호고속은 임원과 사원들이 서로 "형님" "아우"라고 부른다고 한다. 회사 임원과 노조 간부의 반목하는 모습도 볼 수 없다. 마추치면 웃으며 안부를 묻는다. 외환위기 때도 이 회사에선 한 명도 퇴사한 사람이 없다. "지금 내

하반기 경제대책 '냉골' 지방 실상 고려하길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의 -2% 내외에서 -1.5% 내외로 올려 잡았다.

일단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 건설, 제조, 고용 등 전 분야에서 여전히 '냉골' 지방의 경제 대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수도권 일대는 땅값이 오르는 등 경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았다.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겠지만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반기 우리 경제를 괴롭힐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출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힘

들다. 북한 변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풀어나갈 과제라는 산더미다. 지방경제 활성화, 투자 부진, 양극화, 고용 부진, 재정 적자 등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정책 방향이다. 계층간, 지역간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유념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이다. 올해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크게 늘렸으나 일회성 잡일이 대부분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다.

하반기야말로 우리 경제의 회복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기다. 국민은 더 이상 변명을 듣고싶어 하지 않는다. 당국은 전체 한국경제를 책임진다는 자제로 완벽한 경제운용의 틀을 짜야 한다.

無 等 鼓

그는 82년을 살았다. 아니 정확히 25억 8천 5백 95만 2천 초를 살았다고 하는 게 타당하다. 그는 러시아인 류비셰프(Lyubishev, 1890~1972)다. 근중분류 학자, 유전학자, 동물학자였다. 그를 일컬어 '시간을 정복한 사람'이라고도 한다.

그는 5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통계' 노트를 작성했다. 그는 회계장부를 기록하듯 매일 시간을 계산해 넣었다. 심지어 자기 서재에 들어와 시시콜콜 질문하는 딸에게 친절하게 답해줄 때도 허비한 시간을 틈틈이 적었다. 자투리 시간을 아껴야 했으므로 버스, 기차 타는 시간, 회의의 시간, 줄 서 있는 시간조차도 셈했다. 장거 출장을 갈 때 입을 책 목록을 정한 뒤 출장지에 해당 서적을 미리 우편으로 부쳤다. 이렇게 쌓은 시간기록을 매달 말 합산했으며, 연말에는 이를 다시 결산했다. 그래프와 표도 만들었다.

이쯤 되면 압박 또는 심한 결벽증으로 치부할 법하다. 아니, 그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이 앞선다. '그의 삶이 과연 행복했는가'라는.

그런데 류비셰프는 시간 쪼개 쓰기를 오히려 즐겼다. 그는 매일 8시간 이상씩 자고 운동과 산책을 한가롭게 즐겼으며 한 해 평균 60여 차례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했다. 학교와 연구소라는 직장에 다녔으며 각종 세미나를 위해 한 해에도 몇 달씩 전국 각지를 순회했다. 또 동료 후배들에게 애정 어린 편지를 즐겨 썼다고 한다. 물론 누구에게나 이 방법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시간에 이빨러 다니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쫓겨다닌다. 시간의 노예에 다름없다. 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삶에 지쳐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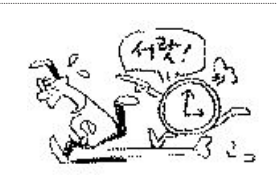
짜깁는 초저렴 세상을 사는 것은 삭막한 일이지 결코 최소한의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의 질'은 한번쯤 따져 볼 일이다. /김일환 여론대처부장 kih8@

그의 삶이 과연 행복했는가

그런데 류비셰프는 시간 쪼개 쓰기를 오히려 즐겼다. 그는 매일 8시간 이상씩 자고 운동과 산책을 한가롭게 즐겼으며 한 해 평균 60여 차례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했다. 학교와 연구소라는 직장에 다녔으며 각종 세미나를 위해 한 해에도 몇 달씩 전국 각지를 순회했다. 또 동료 후배들에게 애정 어린 편지를 즐겨 썼다고 한다. 물론 누구에게나 이 방법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시간에 이빨러 다니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쫓겨다닌다. 시간의 노예에 다름없다. 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삶에 지쳐있다. 짜깁는 초저렴 세상을 사는 것은 삭막한 일이지 결코 최소한의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의 질'은 한번쯤 따져 볼 일이다. /김일환 여론대처부장 kih8@

류비셰프의 시간



기 고



유 창 종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앞선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IT활용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강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IT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써 IMF 경제 위기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매년 25%의 빠른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GDP비중의 16%, 경제성장률 기여율은 40%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IT산업의 비중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의 소득격차, 생활환경 및 수준의 차이,

는 대기업의 단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로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 하도록 했고,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설립 이후 최초로 지역 중소기업에 주사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센터가 보유한 첨단 IT자원을 활용한 지역 IT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전남도립대, 광주대, 조선대, 전남대, 목포대와의 MOU 체결, 현장중심의 지역 대학생 IT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광주대와 연계하여 합동으로 정보시스템 기술향상 국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까지 뒤흔쳐서는 안 된다

편중된 지역개발정책 등으로 인한 호남 지역의 IT산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광주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화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전국 평균(76.3%)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남(65.3%)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전국 IT산업 생산성 비중이 1.2%에 그치고 있어 호남지역의 IT산업 발전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 IT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록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이 다름 아닌 우리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다. 2007년 11월 설립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외교부, 경찰청 등 20개 중앙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관리 기술과 인력은 광주지역 IT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센터는 설립 이후 상주근무자 480여 명과 유지보수 업체 직원 등 3천여 명의 인규유입효과를 창출하였고,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 385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광주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대형 위탁유지보수 사업에

시하고 있다. 더불어 센터 내 석·박사급 인력을 활용하여 호남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IT 전문강의를 무료로 지원하고 등 지역 IT인력양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호남 IT기술사 포럼, 한국건물관리 협회 등 유관기관까지 MOU를 확대하여 다양한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센터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는 호남지역이 이제 지역정보화의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통적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는 IT와 결합하여 첨단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관리 및 보안 분야의 첨단 IT인적자원 및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광주·전남지역 IT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고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새주소로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 고 칼럼



현 지 슌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짐승도 다 같은 동물이지만 짐승에게는 격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부른다. 사람도 인격이 없으면 짐승이라 말한다. 인격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행주와 어묵통정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격을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하대를 받는 사람이 생겨난다.

사람은 도둑도 나름대로 격이 있다 한다. 장자에 보면 ▲도둑은 단번에 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올랐다.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조건 "지당하십니까", "광국하옵니다" 하니 무학대사를 만났을 때 태조가 장난을 걸었다. "대사의 얼굴은 꼭 도야지 같소." 하니 대사께서는 "대왕의 얼굴은 부처님 같으십니다." 하고 답했다. "아니 농담하는데 아부를 하면 어찌하오?" "아부가 아니옵시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옵시다." 하였다 한다. 부질없는 명예와 이익을 구해노라고 이 정부에는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아 어디에 값진 물건이 있는지 아는 것이 쫓이라 하고 ▲홍칠 때 앞장서는 것이 쫓이라 하고 ▲나을 때는 마지막 나오는 것이 쫓이라 하고 ▲재수가 있고 없는 판단을 할 줄 아는 것이 쫓이라 하고 ▲홍칠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쫓이라 하고 말한다.

나쁜 사람도 인간은 격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격이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이며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 당연히 지도자들이다. 특히 지도자들은 미래지향적 나라를 육성해 가고 백성의 생활을 원용하게 하여 서로 화합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함에도 자신들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말로만 소통을 운운하며 통솔함은 횡포이며 권력의 남용이요 하대 받아야 할 인격이다.

꾸미는 얼굴이 두꺼운 상식 없는 지식아부꾼들이 너무 많다. 어떤 법관들은 판결에 영향을 주었고, 어떤 검사들은 표적의 수사를 하였고, 어떤 장관들은 아부적 정책을 펴가고, 어떤 학자들은 역사마저 바꾸려 하고 나라 발전을 연구하는 소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못나 빠진 국회의원을 앞에서 당당히 내보내고 있다.

자비바 어머니가 죽어도 그런 문상을 하겠는가? 신성한 조문객들을 향해 정을 못 차리고 품속에서 해매는 자를 이렇다 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막말들을 토해내고 있다. 과연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싫으면 이 땅을 떠나라 권유할 수밖에 없다. (우등생 원호사 주지)

저 신용자 위한 대출제도 만들어야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를 찾았던 한 여대생이 있었다. 그러나 학비로 빌린 300만 원의 사채를 갚지 못한 여대생은 급기야 술집 접대부로 전락했다. 딸이 술집 접대부가 된다는 걸 안 아버지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은 올해 3월쯤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이 뉴스를 접한 우리나라 대학 당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비웃을 일도 우리 사회에 한두 건일까. 경제위기 속에 사채업

자를 찾는 서민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사채업자의 고리 이자를 제한해도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엄청난 고리를 알면서도 당장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법 고리 사채는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안금융' 같은 제도라도 만들어서 신용이 나쁜 서민들에게도 어떻게든 대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나은성·광주시 남구 봉선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